

‘문학의 해’에 ‘소설꽃’이 활짝 핀다

중진·신예작가들 작품집 풍성... 전집류·번역물도 많아

대부분의 문학출판사들은 문학의 해가 불황의 그늘을 벗어나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도 결국은 생색내기식의 일과성 행사로 그치리라는 회의가 앞서는 까닭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시작부터 뼈저거리고 있는 문학의 해에 편승하여 특별한 이벤트나 기획물을 준비하기보다는 내실있는 기획을 통해 독자에게 진지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설 출간 늘고 시는 움츠러들어

출판사들의 신년계획은 대체로 국내외 소설에 비중을 두고 있다.

지난 12월 1일 기획홍보실을 신설, 체제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은 문학동네(대표 강병선)는 지금까지 주로 국내출판물을 많이 다뤘던 것과는 달리 외국 문학 출간을 늘려나갈 계획. 존 파울즈의 장편소설과 윤대녕의 장편소설이 상반기에 출간됐다. ‘어른을 위한 동화 시리즈’의 첫 번째권인 안도현(시인)의 《연어 이야기(가제)》도 출간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이미 번역에 들어간 10권 분량의 ‘신화상징총서’가 2월경에 첫권이 출간되고 문예흐름을 다룬 ‘현대이론총서’도 5월경에 선보인다.

해냄(대표 송영석)의 출간계획도 소설 출간에 집중되어 있다. 1월에 출간되는 김재식 전작장편 《물위의 하룻밤》을 비롯해서 유망 신인들의 소설을 연이어 펴낸다. 또한 고원정, 김홍신, 김한길의 장편소설 출간을 준비중인데 김홍신의 소설이 반도체를 다루고 있어 이채롭다. 주인석, 구효서, 이명행의 신작 장편에 대한 출간작업이 진행중이며 연말까지 출간 완료된다. 이밖에 J. 넌스의 《판도라의 시계》가 상반기에 선보이고, 구비문학부터 현대 시소설까지 다룬 ‘한국문학총서’(6권)를 2월에 펴낸다.

문이당(대표 임성규) 역시 국내소설 출간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홍상화, 이승우의 장편소설이 상반기에 출간될 예정이며 한승원의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상반기에 완간된다. 이밖에 기출간된 이승우의 《생의 이면》과 이문열의 《우리가 행복해지기까지》가 개작판으로 나올 예정.

특이한 것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와 산문 시리즈’. 시 혹은 산문을 구분해 출판

대부분의 문학출판사들은

시작부터 뼈저거리는 문학의 해에

편승하기보다는 내실있는 기획으로

독자에게 진지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의

출간계획을 보면 소설출판의

비중이 고르게 높고, 전집류와

번역서들도 준비하고 있다.

작가, 독자, 출판사에게 의미있는

한해가 되길 바라는 출판인이 많다.

하던 데서 벗어나 그들을 한데 어우러지게 한다는 출간의도로 모두 100권을 펴낼 계획인데 가을부터 한번에 5권씩 연속적으로 선보인다. 이현미 편집장은 “비슷한 규모의 출판사들과 연합하여 이벤트를 만들자는 의견이 오갔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2월쯤이면 연합 움직임이 가시화되리라 기대한다”며 문학의 해에 무관심할 수만은 없는 문학출판사의 입장을 말한다.

민음사(대표 박맹호)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린 25권 가량의 소설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이영준 주간은 소설부문에 주력하고 시부문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새로 등단한 시인의 시집을 주로 출간할 계획이며 전집류 출판에도 힘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전집들로는 ‘괴테 문학전집’ ‘톨스토이 문학전집’ ‘헤세 문학전집’ ‘릴케 시선집’이 있으며 작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김동리 문학전집’이 올 상반기에 완간될 예정이다. 이밖에 30권 분량의 시인총서를 기획하고 있는데 김수영 이후 90년대까지를 대표하는 30인의 작품들이 수록된다.

동아출판사(대표 김현식)는 문학서 출간 계획 외에도 이벤트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선, 3월에 ‘한국소설문학대계’ 출판기념회를 대대적으로 연다. 작품이 실린 작가와 관련 평론을 쓴 평론가만 300명을 웃도는 까닭에 이 행사는 그 자체만으로 세간의 화제가 될 전망이다. 이어 8월부터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학물의 퇴조현상이 뚜렷했던 지난해의 불황을 겪은 출판계는 올해 ‘문학의 해’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독후감모집 행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독후감 모집 행사는 문학의 저변 확대 측면에서 일조하리라 생각한다. 올해를 계기로 문학서 출판을 대폭 늘릴 생각이다.”

문학의 해에 대한 기대를 밝힌 이희연 편집장은 창작소설 발간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피력한다. 이미 박상우의 전작장편 《신을 찾아가는 어느 신비주의자의 이야기(가제)》, 박일문 장편소설 《우리가 언젠가 희망이라고 불렀던 그곳(가제)》와 이승우 신작 장편의 출간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

문학의 해에 부정적 견해도 많아

민족문학작가회의와 보조를 같이 하는 까닭에 문학의 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는 창작과비평사(대표 김윤수)는 3월에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민족문학제를 가진다. 고세현 편집국장은 “문학출판사로서 더 좋은 문학서를 출판해내겠다는 각오를 새해 들어 새롭게 다졌다. 그러나, 문학의 해라고 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출간에정인 신간들을 살펴보면 시집 출간이 여타 출판사에 비해 많은 것이 눈에 띈다. 창비시선으로 이성부, 이시영, 이재무, 성원근, 김수영, 최영숙 등의 시집들이 연이어 출간될 예정. 또 김도현 장편소설 《로그인》을 비롯해 송기숙 장편소설과 송상욱 소설집이 출간된다. 창비신서로 이동순 논문집 《민족시의 정신사(가제)》와 민족문학사연구소가 엮은 《19세기 한국문학사의 성

격》이 출간되며 ‘한국현대대표단편선’ 9권(최원식 외 엮음)도 선보인다.

문학과지성사(대표 김병익)의 채호기 편집장은 “문학출판사인 우리가 하는 일은 문학서를 펴내는 일이다. 문학의 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하고 문학의 해를 통해 독자와 문학의 거리를 좁힐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작가론총서’로 김춘진의 《보르헤스》와 박미경의 《플로베르》를 준비하고 있으며 김원일의 소설 《불의 제전》은 이미 완성되어 출간을 앞두고 있다. 김주영의 장편 《아정》과 임철우의 《불의 얼굴》도 상반기 안에 선보인다. 이밖에 박상룡, 서하직, 박성원, 신경숙, 배수아 등의 소설집이 연이어 출간된다.

세계사(대표 최선호)는 박상우 장편소설 《호텔 캘리포니아》와 함정임 창작집, 최성각 창작집이 조만간에 출간되고 정끝별의 《졸참나무숲에 살았네》를 비롯해 박상순, 함민복의 시집과 김종희 평론집을 펴낸다.

“작가, 독자, 출판사 모두에게 의미있는 해가 되어야 한다. 몇몇 작가나 출판사의 잔치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학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최승호 주간은 작년이 미술의 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편협한 시각을 버려야만 문학인과 출판인 그리고 독자들이 함께하는 잔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동림 기자